

# 전남도 관광객 5000만시대 앞당긴다

## SRT 개통·개별관광 등 여행 트렌드 변화 맞춰 마케팅

### 남도 여행상품 개발·수학여행객 지원·크루즈 활성화

전남도가 관광객 5000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남도 여행상품 개발 및 출시, 수학여행객 지원 체계 구축, 외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남도한바퀴' 운영 등에 나선다. 호남고속철도에 이어 수서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전남 관광지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남도내에는 3969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관광객 방문 수 전국 2위, 2016년 여름 휴가 종합 만족도 2위, 관광지 호감도 2위,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공공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

올해도 한국 관광 100선에 전남이 9곳이 선정돼 전남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관광수환버스인 '남도한바퀴'는 운행 노선 다양화로 탑승객이 지난해보다 63% 늘었고, 전남지역에 흩어져 있는 종교 유적지를 관광상품으로 발굴했다. 중국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전남지역 3개 여행사가 지정받기도 했다.

올해는 SRT 고속열차 개통, 개별관광(FIT)으로의 여행 트렌드 변화, 중국 사드 영향으로 인한 관광객 제한 등 관광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관광 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서울·부산·수서발 고속철을 이용한 남도여행 1박 2일 상품을 운영한다. 고속철도 정차역에서 '남도한바퀴' 탑승이 가능한 광역수환버스를 운영하고, 고속철 승차권 소지자 대상 할인 업소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행사 및 시·군 축제를 연계한 기차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수학여행 등 교육여행객 유치를 위해 숙박과 체험시설에 대한 사전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방문 학교에 대해서는 수학여행지 도시와 남도국악 공연을 지원한다. 종교 순례 관광상품의 경우 동·서부권 순례코스를 운영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 관광객도 유치할 예정이다.

중국과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일본, 동남아 등 항공 신규 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수항은 모항과 기항지항으로, 목포항은 서남해안 문화관광자원 활용한 기항지항으로 각각 사용하기로 했다.

국내외 개별관광객 여행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글로벌 남도한바퀴를 운영하고, 해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전남여행상품 판매에 나선 계획이다.

정순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관광업계가 사드 여파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가와 관광객 대상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층 발굴과 내실있는 관광상품 운영으로 관광객 5000만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산천어 낚시 열기 '후끈' '2017 산천어축제' 개막 첫 주말을 맞은 15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 얼음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겨울 추억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 트럼프, 역대 최저 지지율 44%로 20일 취임

### 황 대통령 권한대행 축전

### 손학규 등 취임식 참석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5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90만여 명의 청중이 행사장인 워싱턴DC 의사당 주변 야외공연을 매운 가운데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취임식에서 공식 경력이 전무한 '첫 아웃사이더' 출신으로 세계 최강국의

수반에 오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로써 73일 간의 당선인 꼬리표를 떼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아 마침내 '트럼프 행정부'의 막을 연다.

그러나 트럼프는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에서 국정을 시작하는 미국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지난 4~8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32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은 44%로, 한 달 전의 48%에 비해 4%포인트

트 하락했다.

또 미국 연예계 인사들이 너도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악연을 꺼리는 가운데 호주 출신 할리우드 스타 니콜 키드먼도 이 행렬에 동참했다.

3조 원의 자산가인 억만장자 부동산재벌로 김경협·새누리당 운영서·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오는 22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미국 신(新) 정부 인사 등과 북한·북핵 문제, 한미동맹 등 주요 안보정책을 전반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8일 대선에서 승리한 뒤 조각 작업을 진행해온 트럼프 당선인은 조만간 상원 청문회의 인준을 통과한 각료들과 함께 새 정부를 이끌게 된다.

과 함께 새 정부를 이끌게 된다.

트럼프의 취임식에 맞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축전을 보내기로 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9~22일 3박4일간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새누리당 운영서·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오는 22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미국 신(新) 정부 인사 등과 북한·북핵 문제, 한미동맹 등 주요 안보정책을 전반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전남도 “올 벼 종자 대란 없다”... 93% 확보

### 저수지 3207곳 저수율 73%

유례없는 벼 수발아(穂發芽·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의 영향으로 예상됐던 올 벼 종자 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까지 보급종 2042t, 증식종 399t, 자율교환 2056t, 자가 확보 3012t 등 모두 7509t의 종자를 확보했다. 올 벼 재배 계획 면적 16만1495ha에 필요한 종자량 8074t(ha당 50kg 소요 기준)의 93% 가량이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9~10월 잦은 비, 고온 등으로 대규모 수발아 피해가 발생해 정부 보급종 공급량이 애초 계획

(4730t)의 절반 수준인 2414t으로 줄었다.

종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전남도는 시·군, 종자원, 농관원, 농협 등이 참여한 벼 종자 수급 안정 추진단을 구성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벼 종자 알선창구를 개설해 농가 자율교환을 독려하기도 했다.

최향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우려했던 종자 보급에 승용이 트였다”며 “관리 저수지 3207곳의 평균 저수율(73%)도 지난해(59%)나 평년(68%)보다 높아 농업용수 공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전남도 16일부터 불법어업 특별단속

###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도 대상

전남도가 16일부터 5일간 불법 어업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설을 맞아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고, 어린 물고기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합동단속에 135건(연 평균 27건)의 불법 어업이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무기산 33%, 해조류양식 불법시설 19%, 연안 통발 16%, 기타 어선어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동단속에도 전남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8척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0명이 4팀의 단속반으로 나눠 전남

지역 모든 해상과 수협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중·대형 저인망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행위 등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을 중점 단속한다.

해양생태계 및 친환경 정경이미지를 훼손하는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겨울철에는 출어선의 해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어업지도 공무원이 직접 어선에 승선해 어선 설비 기준 준수 등 안전점검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북핵문제 공조·동북아 정세 점검

### 외교부 오늘 '주변 4강·유엔대사' 긴급 공관장회의

외교부는 16일 한반도 주변 4강 등에 주재하는 핵심 대사들이 참석하는 긴급 재외공관장회의를 개최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른바 주변 4강 주재 대사 및 주 유엔대사와 함께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 점검을 위한 회의를 한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금년도 주요 외교과제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며 “변화하는 동북아 여내 외교환경을 점검하고, 한반도 주변국 및 유엔과의 외교방향 검토하는 한편, 북핵·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 등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안호영 주미대사와 이준규 주일대사, 김장수 주중대사, 박노벽 주러대사 등 4강 주재 대사와 조태열 주유엔대사가 참석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들 대사와 의견을 함께한 뒤 설·국장급 간부들까지 대거 참석한 공관장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처럼 4강 대사 등만 따로 불러 재외공관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외교부 역사에서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3월경 전 재외공관장들이 서울에서 모이는 정례적 공관장회의와도 별개다. 이번 회의는 한반도 주변의 급격한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정부의 위기의식 발로이자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태영21병원 개원 5주년

**박문경 초청음악회**  
| 전, 광주시향 첼로수석 |  
바히르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2017년 1월 19일(목) 7:00(PM)  
태영21병원 세미나실

인공신장실(아간투석)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합검진센터(전신 MDCT 보유) | 입원실(46 bed)  
당뇨병·갑상선 연구소(국가공인) | 아침 7:30분 부터 검진 시작  
유방클리닉(외과 전문의)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신세계 백화점 |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